쏘나타 급발진 사고 1위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제328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1983.46 (+7.99)

코스닥 731.36 (+14.16)

금리(국고채 3년) 1.73 (+0.02)

환율(원·달러) 1174.60 (-8.00)

이재용三星? 싸늘한 시장

삼성물산 합병 주총 한달… 주가 30% 폭락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도 맥풀린 내림세
후계구도 아직 미완… 다음 단계 추진 난망

<삼성물산 합병 관련주 최근 한달 주가 추이>

	7월 17일 최고가(원)	8월 13일 종가	증감률
삼성물산	71,800	50,000	-30.36%
제일모직	203,000	146,000	-28.08%
삼성전자	1,311,000	1,140,000	-13.04%
KCC	557,000	398,000	-28.55%
KODEX삼성그룹	5,830	5,040	-13.55%
코스피	2101.22p	1983.46p	-5.6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7월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한 이후 한달 간 여의도 증권시장에 나타난 반응은 의외라고 할 정도로 차갑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정비의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그룹사 삼성전자까지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모습이다. 심지어 삼성이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밀려 코너에 몰렸을 때 백기사로 나타나 삼성물산 자사주를 몽땅 인수한 KCC마저 주가 속락 사태를 맞았다.

이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 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보유지분에 대한 합병주총 이후 평가 손실만 6000억~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 구축을 돕다가 KCC는 막상 자기회사 주주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털어먹는 꼴이 됐다. 합리적 시장 규칙을 무시하고 재벌 후계 구도 구축에 조력자로 나선 대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둘러대지만, 핑계일 뿐이다.

지난 한달 동안 관련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합병 찬성론자들이 주장한 '시너지 효과' 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주총 후 한달 삼성물산 주가 30% 폭락… 코스피 하락률은 5.6%

7월 17일 합병 주총일 장중 고가와 13일 종가를 비교했을 때 삼성물산 주가는 30.36% 폭락했다. 제일모직도 같은 기간 28.08%, 삼성전자는 13.04% 내려앉았다. '백기사' KCC 주가도 28.55%나 빠졌다.

삼성으로서는 이 기간동안 코스피지수 전체가 하향세를 보인 걸 핑계거리로 삼고 싶겠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되레 삼성 합병 관련주가가 빠지면서 코스피지수도 매가리를 잃기 시작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코스피지수는 삼성 합병 주총 이후 2101.22(7월17일 장중 최고가)에서 1983.46(13일 종가)으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5.60%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 관련 상장지수펀드인 KODEX 삼성그룹은 7월17일 장중 583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13일 50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3.55%다. 코스피지수 하락률에 비해 삼성그룹주들의 평균 하락률이 두배 이상인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6일 "최근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지수도 7월17일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안이 강행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경우 합병 주총을 전후해 내놓은 잇따른 주가 방어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삼성발 한국시장 실망론'에 힘이 실린다.

삼성은 합병 추진과정에서 통합 삼성물산의 배당성향 상향,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원회 신설 등 각종 주주친화 정책을 약속했다. 배당성향은 30% 수준을 지향하고 거버넌스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했다. 통합법인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라이프 이노베이터'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건설, 상사 부문의 B2B 사업 지속 성장과 패션, 식음·레저 부문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장미빛 계획도 내놓았다. 뉴 삼성물산이 버는 영업이익의 0.5%는 사회공헌에 쓰겠다는 공약도 했다.

합병 주총 이후에도 주가방어는 계속됐다. 제일모직은 7월23일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440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도 7월 19일 '합병 삼성물산의 비전과 시너지' 라는 자료를 다시 내놓으며 5년 뒤인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재차 장담했다.

이런 '눈물나는' 노력 덕분에 삼성은 8월 6일 마감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막는데 성공했지만, 주가의 하락 흐름 자체를 바꿔 놓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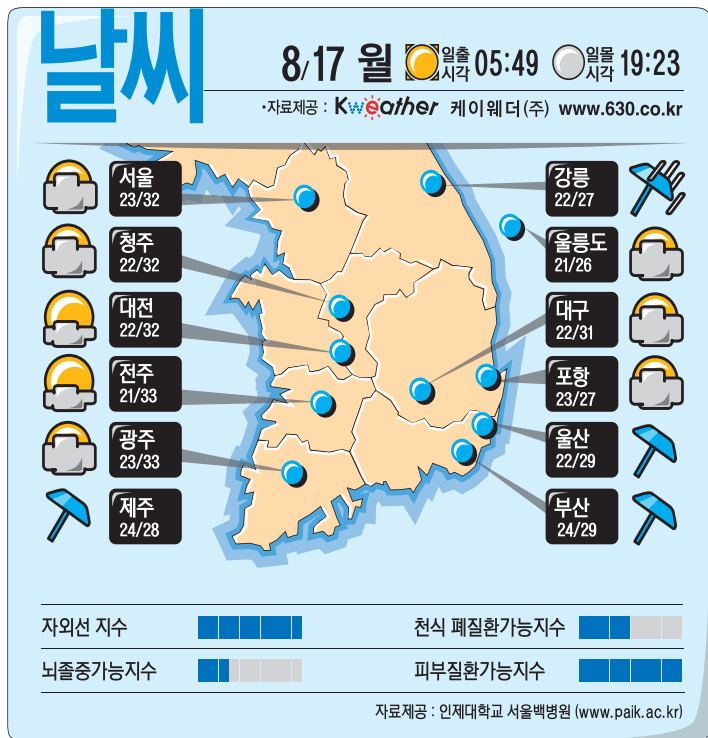
◆ "최지성팀의 치명적 자책골… 다음 단계 추진 난망"

삼성은 막판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심 마케팅'과 삼성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관투자자들 덕분에 합병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긴 했지만, 결국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평가를 피할 순 없어보인다. 주주 이익이나 기업가치는 뒤로 하고 오로지 '이재용 지분율'에 집착한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팀의 치명적인 자책골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9월 1일 합병법인이 발족하더라도 삼성이 바라는 '이재용 단일 리더십' 구축은 뒤로 미뤄지거나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뉴 삼성물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됐다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상 이를 통해 부릴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4.06%에 불과하다. 이게 이재용 삼성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건 자명하다.

지금까지 삼성의 전략, 즉 '돈 안들이고 3세 후계구도 만들기'가 완성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 같은 제2, 제3의 계열사 헤쳐모여 작업을 추가로 더 해야만 '이재용 삼성' 체제가 제대로 구축된다. 하지만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전례없는 졸작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남은 '이재용 삼성' 구축작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물산 합병 시점 등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일단 합병안을 철회한 뒤 다음 기회를 보라던 시장의 일부 합리적 지적을 되레 '반 삼성'이라고 적대시한 삼성의 근시안적 사고가 몰고온 필연적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합병주총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뿐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도 향후 지배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수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강민규 기자 unha@metroseoul.co.kr

유통

▲
한일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1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진 교체 안건이 제시되고 신 총괄회장이 승리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의 주주로만 남으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관건은 롯데홀딩스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우리사주회. 양측 모두 우리사주회의 지분 3분의1을 자신의 편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신동빈 회장에게 좀 더 유리하게 판세가 기울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CJ그룹에 따르면 당초 다음주 주말로 예상됐던 **이맹희** 명예회장의 운구 일정이 이번주 초로 빨라질 전망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CJ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차리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CJ와 삼성이 '조문 회동'을 통해 화해의 길을 열어갈 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컨세션**(Concession) 사업에 뛰어든 식품 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초 인천공항 식음료 사업자 입찰을 따낸 SPC, CJ푸드빌, 아워홈, 아모제푸드, 풀무원 이씨엠디 등 5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4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천공항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외식업체들에게 글로벌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국제

▲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톈진항의 엄청난 물동량이 모두 중지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규슈의 대표적 화산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가 대규모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 지난 14일 발표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들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 태평양 전쟁 개전 및 종전 당시 일본 외상을 지낸 도고 시게노리의 손자 **도고 가즈히코**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포함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14명의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분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달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이 서민 이용이 높은 고금리 카드론 영업을 통해 '돈놀이'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롯데카드 등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은 서민 이용이 대부분인 카드론에 대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전체 카드사 중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주식시장에서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최근 합병한 **SK㈜**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을 제치고 실질적인 '황제주' 1위 자리에 올랐다.

▲ 지난 13일 종가기준 환산주가 순위에서 **SK C&C**의 환산주가는 776만25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개월간 1위를 지켜온 제일모직은 환산주가 730만원을 기록해 2위로 밀려났다.

▲ 박근혜 정부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건설업체의 입찰제한 징계를 해제했다. 관련업계는 앞으로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정노력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시중은행**들이 조선업 부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 빅3가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예고하는 등 업계가 적자의 늪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 LG전자**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양사는 올 상반기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 실적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HTC·MS·퀄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는 실적부진으로 대규모 해고·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대자동차 **쏘나타**가 최근 5년 7개월 동안 급발진 사고가 가장 많은 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쏘나타는 총 72건의 급발진·급가속 사고가 접수됐다. 현대차 그랜저는 46건으로 쏘나타의 뒤를 이었다.

평양 버스 정류장 16일 평양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평양 AP=연합뉴스

정치·사회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집권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또 집권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당초 예정대로 2000만 평(현재는 4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 0시부터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간'**을 사용 중인 가운데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도 북측 시간에 맞춰 30분 늦추라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6일 출범 한 달 만에 실적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노동개혁을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했다.

▲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행한다. UFG 연습과 북한 지뢰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심리전이 재개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검찰이 **농협유통**으로부터 NH개발-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하청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잡고 그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활동이 뜸해 폐쇄된 **다음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글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용순 원장)은 15일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졸자 청년의 51%가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결전의 날 '신격호 vs 신동빈' 승자는

롯데홀딩스 주총 승리 관건은 '우리사주회'
신동빈 승리해도 신동주 '법적대응' 남아

한일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1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주총의 주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당초 주요 안건으로 알려진 신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는 기존 정관 변경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신 총괄회장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장남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총에서 아버지에게서 롯데를 '탈취'한 신동빈(60) 회장의 이사 해임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진 교체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진 교체 안건이 제시되고 신 총괄회장이 승리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신동빈 회장은 롯데를 잃게되고 자신이 최대주주(13.46%)로 있는 롯데쇼핑 정도를 가져갈 수 있어 보인다.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의 주주로만 남으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은 주총 참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신 총괄회장의 자산관리회사 광윤사가 33%, 신동빈 회장은 1.4%, 신동주 전 부회장 2.0%, 이사진 외 조합원 30% 내외(추정), 우리사주회가 30% 내외(추정)를 갖고 있다.

현재 이사회를 비롯한 조합원의 지분 30%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면 우리사주회의 지분이 필요하다.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두 형제의 주장은 엇갈린다. 양측 모두 우리사주회의 지분 3분의1을 자신의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과 우리사주회를 합해 이미 3분의2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장담했다.

신동빈 회장도 이달 4일 입국하며 자신이 롯데의 차기 총수임을 과시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이미 70%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우리사주회의 의중은 주총 당일 확인 가능하지만 일본 재계는 신동빈 회장에게 좀 더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27일 일본을 방문해 신동빈 회장 외 이사진을 해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미 6월30일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가진 L투자회사의 대표로 취임된 점을 감안하면 그 전부터 신 회장 측에 의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치밀하게 준비된 일임을 알 수있다.

하지만 '신동빈의 쿠데타'는 신 회장이 주총에서 승리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현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스스로 이사회를 대동해 L투자회사 대표로 취임·등기한 것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법무성에 등기된 현직 대표이사의 동의없이 신임 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경우 절차 상에 문제가 되며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동의없이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속한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회장 편으로 알려진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88)와 함께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주총 참석을 위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16일 오전 11시께 일본으로 각각 출국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폐허가 된 톈진항 폭발사고로 톈진항 창고 철골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수천대의 차들이 순식간에 타버렸다. /연합뉴스

日 규슈 사쿠라지마, 대규모 분출 조짐

일본 규슈의 대표적 화산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가 대규모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재가동에 들어간 인근 센다이 원전 1호기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5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다이쇼 대분화로 유명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15일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에 분화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레벨을 3(입산 규제)에서 4(피난 준비)로 격상했다. 최근 몇년간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쿠라지마를 대상으로 한 경계레벨 4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부터 사쿠라지마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다수 발생했다. 팽창 조짐을 나타내는 지각 변동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마그마가 얕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다. 지금 당장 (대규모)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안전불감증'에 中고속성장 상징이 폐허로

중국 톈진 폭발 사고
사고 파악도 어려워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톈진항의 엄청난 물동량이 올스톱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중국 고속성장의 명암이 교차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아직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고속성장에 따른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 1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가 700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시신의 신원확인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이 현장 취재는 물론이고 보도까지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언론이 인근 3㎞에 추가 폭발을 우려한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오보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소개령은 오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비가 내릴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첫 폭발은 12일 자정께 발생했다. TNT 20t 이상의 위력으로 당시 화염이 건물 몇 층 높이로 치솟아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한 화학물질이 쌓여 있던 창고가 폭발한 결과이지만 당국은 창고에 어떻게 불이 붙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첫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서 화학물질의 폭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갑작스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중 최소 21명이 소방관들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앞서 이미 중국 지도부는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라는 진단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국자들을 향해 "피로 값을 치른 극히 중대한 교훈을 새기라"며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위험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집권하면 개성공단 키우고 금강산 관광재개"

문재인 차기집권비전 선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
국민소득 5만 달러 가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집권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예정대로 2000만평(현재는 40만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인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통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 7개월만에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통일대박론'에 환호했던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뜬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복 70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경제통일을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며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에 따르면 이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환동해권은 부산을 시작으로 북한 동해안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트라이앵글, 부산을 중간으로 북한 나진·선봉항과 일본 니가타항을 잇는 남방 트라이앵글의 두 축이다.

환황해권은 목포·여수에서 시작해 북한 해주·남포를 거쳐 중국을 연결하고, 한편으로 목포를 중간으로 남포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다.

문 대표는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단숨에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클럽'(인구 8000만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매년 5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한국경제의 난제인 청년 실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집권비전 외에도 현 정부에 6자회담 속개를 위한 '2+2'(남북간·북미간) 회담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막고, 갈림길에 선 동북아 정세의 방관자에서 벗어나자는 이유에서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 구상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통일대박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대박론'을 지지했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통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2+2'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합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北 "개성공단도 '평양시간'에 맞추라우"

입출경 시간 30분 지연 통보
오늘부터 첫 출경 9시로 변경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 0시부터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간'을 사용 중인 가운데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도 북측 시간에 맞춰 30분 늦추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은 어제 오전 서해 군통신을 통해 남북 군통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 제정된 시간에 맞춰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산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남북한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개성공단 출입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개성공단 첫 출경시간은 기존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된다. 마지막 입경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바뀐다.

북한은 지난 7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동경 135도가 아닌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0시를 기해 평양 시민이 모인 가운데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에 있는 연광정에서 타종행사를 열었다. /윤정원 기자

아베 '러일전쟁' 미화… 우익소설 현실로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탈바꿈
美정부, 공식 환영입장 내놔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지난 14일 전세계로 방영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의 서두 중 일부다. 이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빨간 밑줄을 긋고 뼈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지배를 노린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기존 평가가 아베 총리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맹방이라는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환영 입장까지 내놨다.

경술국치는 19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어 한국 지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은 전후 미군정에서 벗어나자 이 같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해 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돌발적이 아닌 우익의 오랜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일본의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이 지나온 길은 이를 방증한다.

이 소설은 러일전쟁에 복무한 형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을 은폐하고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대받는 아시아 인종이 초고속 근대화에 성공하고 마침내 대륙의 열강인 러시아를 꺾으며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합류)의 꿈을 이룬 데 대한 자찬이라는 지적이다.

시바 료타로는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는 달리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낙천적인 시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 담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국제적인 반식민 조류를 잘 따라가다 그만 대공황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길로 갔다고 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케이신문에 연재돼 전후 세대에게 우익사상을 심어준 이 소설은 2009년 NHK대작으로 다시 태어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방영되는 동안 매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지지가 44.2%로 반대(37%)보다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역사학)는 러일전쟁에 대한 평가를 아베 담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라고 아베 담화를 평가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소송제도 대안’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가운데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다.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미란 기자

“해군 홈피 비판글 삭제는 위법”

法 “표현 자유 침해”

법원이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두고 논란이 거셌던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글,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기자고 제안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 됐고 같은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다.

해군은 박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씨 등 글 게시자 3명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었고 원고 박씨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 담당자가 관련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게시글이 삭제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원 기자 hong@

의협 “메르스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을”

복지부 “다각적인 방안 강구”

메르스 종식이후 병원이 입은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7월 초부터 줄곧 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와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메르스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간접 피해 구분 없이 전체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과 조사표 항목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이외의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며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도 추가해야 하고 ▲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지의 조사항목을 2015년 6월·7월·8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메르스로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피해 조사진행이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복지부와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法, 학교 근처 호텔, 악영향 없다면 ‘허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 호텔 건립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사대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종로구 이화동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관련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예외로 “교육감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호텔이 학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미란 기자

로또복권 제66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5	8	19	38	42	2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080,244,14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0,449,192
3등	5개 숫자 일치	1,491,67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장기간 미접속 카페, 폐쇄 '정당'

法 "약관 근거 둔 정당조치"

활동이 뜸해 폐쇄된 다음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글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변호사는 2007년 3월 포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5년 뒤 다음은 A변호사가 이 카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페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했다. 또 이메일을 보내 '30일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 폐쇄된다'고 통보했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이 없거나 회원가입이 없는 경우,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강제 폐쇄한다고 명시돼있다. 다음 측은 회신을 받지 못했고 결국 카페는 사라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하면서 그간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폐쇄 사실을 상당 시일이 지나 알게 됐다고 자인하는 등 본인이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A변호사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입장에서는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원 기자

더딘 대법 심리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상고심 거론… 비판 제기 꾸준해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후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대형 서점 개학 앞두고 북적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2학기 참고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 임원, 주가 조작으로 32억 꿀꺽

브로커와 블록딜로 주식 대량 처분해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증권사 임원이 적발됐다. 이는 증권사 임원이 돈을 받고 기관투자자를 이용한 첫 사례다.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을 성사시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로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그룹 최대주주 유홍무(56) 회장과 전문 주가 조작 브로커 양모(44)씨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씨씨에스주식에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3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상무는 이 과정에서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해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양씨 등 2명은 유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인 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7억5000만원과 시가 6억원 상당의 씨씨에스 주식 60만주를 받아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한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475원까지 끌어올렸다.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유 회장은 차명주식 364만주를 처분해 21억원을 손에 쥐었고 대부분 금융권 부채 해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검은 거래를 통해 결국 손해를 본 이들은 주가조작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었다.

블록딜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씨씨에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일반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했지만, 유 회장 일당이 주식을 대량 내다 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큰 손실을 본 것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가 소유한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서울시 공공캠프장, 안전감사 '낙제점'

10곳 중 6곳서 32건 적발
미비사항 시정·개선 권고

서울시 공공 캠프장들이 안전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4월 2일 공공용지 내 캠프장 1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숲속캠핑체험장, 난지캠프장, 한강여름캠프장, 서울대공원 캠프장, 중랑가족캠프장, 노을캠프장 등 6곳에서 32건의 안전 미비사항을 적발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숲속캠핑체험장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안전관리요원 없이 강사 1명이 캠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전요원을 상주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가 비치되지 않은 것과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게시판이 없는 점도 적발해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난지캠프장은 텐트가 194개 동에 이르지만 소화기는 150개밖에 없고, 전기자동차단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텐트 1개 동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갖추라고 권고했다.

사업허가서에 안전점검 항목이 빠진 점과 이용객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텐트 간 거리가 최소 3m는 돼야 하는데 30~70cm밖에 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캠프장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적발됐다.

한강여름캠프장 역시 안전요원, 소화기, 방송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서울대공원 캠프장도 텐트는 160개 동에 이르지만 소화기는 60개뿐이었고 텐트 간 거리는 50cm에 불과했다.

중랑가족캠프장은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노을캠프장은 캠프장 근처에 갈대숲이 있어 바비큐 그릴 불씨가 날리면 화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시가 개선을 요구했다.

/이홍원 기자

계약금 980만원 투자 후, 잔금 918만원 내면 '끝!'

축 GRAND OPEN 축

임대보증금 447만원

715만원 1년 수익금 선지급

실 투자금 1,898만원이면 통장으로 매 월 60만원 씩!!

3채 5,700만원!
(매월 180만원 지급)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분양 중인 호텔 대비 최대 1억원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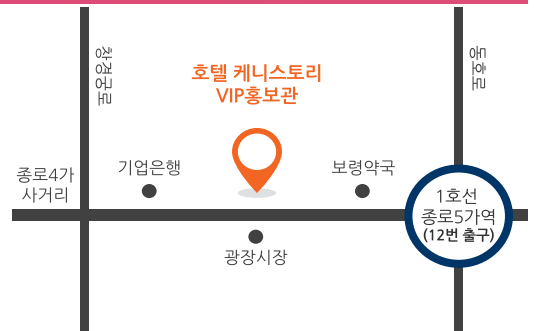
상기 이미지는 건축법 변경으로 인한(사선제한폐지) 설계변경을 적용한 것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 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하겠습니다.

예금 1% 초저금리시대 고수익 분양형 호텔이 정답

항목	금액
분양가	8,945만원
보증금	447만원
실투자금	1,898만원
중도금대출	5,883만원
대출이자	205만원
연수익	715만원
연순수익	509만원
월순수익	42만원
수익률	26.8%

위 수익률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며 중도금 무이자 50%대출, 잔금대출 10%(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 수익률입니다.

계약자 선착순 정관장 홍삼세트 증정

방문시 선착순 사은품 증정

모델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0번지 (종로 5가역 12번출구, 광장시장 건너편)

신청금 100만원 선착순 호실 배정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
입금계좌 : 351-0776-2742-43(농협)
미 계약시 전액 환불 됩니다.

문의전화 1899-5663

호텔개요 ·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70-9 외 4필지 · **용도** : 숙박시설 근린 상업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10층 · **객실수** : 305실

시행사 비디파트너스 · 운영사 벨류버츄어서클 · 시공사 석장건설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엔터株, 깜짝실적 훈풍… 하반기도 흥행 예고

| 마켓인사이트 |

SM,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YG·큐브 등도 호실적
증권가 "SM 中·日 법인 설립… 3분기 최대실적 기대"

'엔터주'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 소식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엔터주로 에스엠(SM),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 큐브엔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종목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데다 적극적인 해외 공략으로 다시 엔터주 열풍이 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에스엠은 지난 10일 2분기 매출액이 761억원, 영업이익은 1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5%, 116.2%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로 시장 예상치(18%)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주가도 모처럼 함께 웃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33.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김창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90억원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증가와 중국 활동 확대가 기여한 바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확인된 만큼, 중국 음악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에스엠 주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정표 키움증권 연구원도 "에스엠 소속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 횟수와 출연료가 동반 상승하며 올 상반기 중국 매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181억원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에스엠은 중국 현지화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SM 차이나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 외에도 일본 법인의 수익성 회복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홍 연구원은 내다봤다. 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에는 일본지역 콘서트 관객수 증가로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에 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계열사 SM C&C도 하반기에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엑소'

YG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0억92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2억5300만원으로 35.3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5억7100만원으로 186.91% 늘었다.

2분기 호실적 소식에 주가도 화답했다. 이날 YG엔터의 주가는 전일대비 3.12% 오른 5만95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0일부터 견실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YG엔터의 2분기 실적 개선은 4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들어간 남성아이돌 '빅뱅' 덕분이다. 빅뱅은 내년 초까지 70회 공연에 140만명의 관객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분기 공연 매출은 100억 5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6.3% 급증했다. 2분기 공연 매출 비중도 지난해 4%에서 22%로 크게 늘었다. 또 9월에는 신인그룹 '아이콘'의 데뷔가 예정돼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점쳐진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17일	일본	2분기	GDP 잠정치(YoY)	2.1%	3.4%
	유로존	6월	무역수지		21.2B
	미국	8월	뉴욕 제조업지수	4.8	3.86
	미국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61	60
18일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MoM)	1.4%	9.8%
	미국	7월	건축허가(MoM)	-0.9%	7.4%
	일본	7월	무역수지		-￥69.0B
19일	한국	7월	PPI(YoY)		-3.60%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7월	CPI(YoY)	0.20%	0.10%
	유로존	6월	경상수지		18.0B
	일본	7월	무역수지		-￥69.0B
20일	미국	7월	기준주택매매	5.21M	5.49M
	미국	7월	선행지수	0.20%	0.60%
21일	유로존	8월	소비자기대지수 잠정치		-7.1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국내 주식펀드, 위안화 충격에 2%대 하락

국내 주식형펀드가 위안화 평가절하 충격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

16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13일 공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식펀드의 주간(8월 7~12일) 수익률은 -2.22%였다.

유형별로는 중소형주식펀드의 주간 수익률이 -3.80%로 가장 낮았다.

또 일반주식펀드(-2.21%), 배당주식펀드(-1.61%), K200인덱스펀드(-1.22%) 등 모든 유형의 국내 주식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88%, 4.08% 하락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1718개 펀드 중 1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펀드는 60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펀드는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다. 위안화 평가절하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기채권펀드가 0.43% 올라 채권펀드 중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나타냈고 우량채권펀드(0.29%), 초단기채권펀드(0.03%), 일반채권펀드(0.17%)의 성과도 양호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펀드도 위안화 평가절하의 충격을 받아 0.66%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신흥국주식펀드(0.19%), 중국주식펀드(0.11%)만 소폭 상승했고 동남아주식펀드(-2.48%), 글로벌주식펀드(-1.54%) 등 대부분 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민지 기자

SK C&C '황제' 등극, 제일모직 '폐위'

합병과정 주가 꾸준히 상승… 환산주가 기준 1위 올라
'광복절특사' 최태원 경영 복귀… 그룹 청사진 기대감 '상승'

국내 주식시장에서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최근 합병한 SK㈜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을 제치고 실질적인 '황제주'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종가기준 환산주가 순위에서 SK C&C의 환산주가는 776만25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개월간 1위를 지켜온 제일모직은 환산주가 730만원을 기록해 2위로 밀려났다.

환산주가는 상장사들의 액면가가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모든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맞춰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증권시장에서는 환산주가를 가지고 실질적인 황제주를 가린다.

SK C&C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14%(6500원) 오른 31만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 C&C 주가는 SK와의 합병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상승했다. SK C&C가 SK와의 합병을 발표한 지난 4월20일 23만1500원이던 주가는 현재까지 34.12% 올랐고, 환산주가는 578만7500원에서 200만원 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10조2000억원에서 13조6620억원으로 3조4620억원 증가했다.

실질적인 황제주를 가리는 '환산주가' 순위에서 SK C&C가 제일모직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SK C&C와 제일모직은 같은 합병 이슈를 두고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합병후 주가 흐름 엇갈려

SK그룹은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 주식과 약 1대 0.737 비율로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했다. 합병 사명은 SK㈜로 결정했다. SK 구(舊)주권은 지난달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오는 17일 신주 상장된다.

증권가에서는 SK C&C 합병 이후 기존 사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주가도 낙관하고 있다. 기존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은 다음 달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SK C&C의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되면서 SK그룹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3.07% 오른 것과 함께 SKC(6.63%), SK이노베이션(6.57%), SK가스(2.96%), SK케미칼(2.93%)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일제히 상승했다. SK네트웍스와 SK증권, SK컴즈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이후 주가가 줄곧 하락하면서 SK C&C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일모직은 네이버를 제치고 환산주가 1위에 오른 지난 2월10일 이후 처음으로 '실질 황제주' 자리를 빼앗겼다. 제일모직 주가는 13일 종가기준 14만6000원을 기록해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19만4000원에서 24.74% 역주행했다. 이 기간 환산주가는 97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주저앉았고, 시가총액은 26조1900억원에서 19조7100억원으로 6조4800억원 증발했다.

제일모직은 지난해 12월 액면가를 100원으로 분할해 상장에 나선 이후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공모가인 5만3000원에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엘리엇과의 지분 다툼을 전후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승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SK C&C는 승승장구하는데 반해 제일모직 주가는 크게 내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SK C&C 합병은 반대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찬성한 국민연금도 뭇매를 맞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금융권, 조선사 여신회수 '속타네'

"리스크 관리 vs 기업 살리기" 평가 엇갈려

시중은행들이 조선업 부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 빅3가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예고하는 등 업계가 적자의 늪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조선사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 확보와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요구에 봉착하게 된다.

조선 3사는 올 상반기에만 약 4조7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우조선 등은 재무구조 개선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안을 타개책으로 내놨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은행에서는 발을 빼고 싶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어 여신회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무분별한 여신 회수에 쓴소리를 내뱉았다.

진 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정상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려는 '비올 때 우산뺏기 식'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옥석 가리기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분별하게 여신을 회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우조선발 악재에 데인 금융사들이 한진중공업 등 여타 조선업체의 기존 여신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KB국민은행이 한진중공업에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200억원 규모의 신용 대출 등에 대해 만기연장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8월 말 만기라는 건 맞지만 아직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만기연장 불가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여신을 회수하려했다기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기업정상화를 위해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부진한 업황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 대해 은행권이 자금줄 죄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우조선 채권단에 여신 회수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기존 대출과 RG(선주가 선박을 주문할 때 미리 주는 돈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선수금환급보증) 회수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이는 은행의 잇다른 여신회수가 여타 대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충당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을 하게 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급증할 수 있다.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 등 67개 금융사의 신용공여액은 6월 말 기준으로 23조2245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출은 5조1525억원, RG는 18조721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액이 12조2119억원으로 가장 많다. 산업은행(4조1066억원), 농협(1조6407억원), 서울보증보험(1조1148억원), KB국민은행(8438억원)순이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한없이 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상황"이라며 "여신심사는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누가 총대를 메겠냐"고 지적했다. 위험한 대출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 입김 때문에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니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 또한 "경영실사과정이나 자구계획을 보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내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신한은행 '무궁화 그리기, 포토월' 행사 개최 신한은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무궁화 그리기 대회'와 '무궁화 포토월'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용산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진행된 '무궁화 그리기 대회'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꾸려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으며 직접 그린 무궁화는 티셔츠로 제작, 지급됐다. /신한은행 제공

대기업계열 카드사, 20% 이상 고금리 '논란'

현대·삼성·롯데카드 순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이 서민 이용이 높은 고금리 카드론 영업을 통해 '돈놀이'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성·롯데카드 등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은 서민 이용이 대부분인 카드론에 대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 카드사 중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할 시 잠깐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3개월 이상 돈을 빌리는 장기대출 상품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장기간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이다.

현재 카드론 이용 고객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올해 6월30일까지 금리 20%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은 전체 이용고객 중 38.85%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4명이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있다. 금리 구간별로는 20~22%미만의 금리가 적용된 고객이 17.15%, 22~24%미만이 12.94%, 24~26%미만 7.38%, 26~28% 1.38%다.

현대카드의 카드론 최고 금리는 27.5%로 모든 업계와 은행계를 포함, 19개 전체 신용카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고객 중 24.77%의 고객이 20%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20~22%미만이 8.82%, 22~24% 미만이 15.95%다.

이어 롯데카드가 20.66%의 카드론 고객에게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0~22%미만이 7.20%, 22~24%미만이 13.46%였다.

이밖에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카드는 20% 이상 고금리 카드론 비중이 18.36%였고, 하위권인 우리카드와 하나카드의 경우 각각 15.39와 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보배 기자

생명보험사 보험료 인상 '코앞'

금감원 표준이율 인하 가능성 보험료, 5% 안팎 인상 검토 중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달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료 인상에 들어간다.

삼성생명은 다음 달 중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추석 이후부터 10월 사이 논의를 거쳐 보험료를 인상한다. 한화생명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NH농협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등도 보험료 인상폭과 대상 범위, 적용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료를 금리연동 상품에 투자해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운용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내려가면서 준비금의 이자수익이 크게 줄었다. 오는 10월 확정될 금융감독원의 표준이율 조정안도 보험사들에겐 부담이다.

금감원은 해마다 9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적용할 보험사들의 표준이율을 새로 산출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둔 돈에 적용되는 이율로, 표준이율이 인하되면 보험사들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린다. 이때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업계에는 올해 표준이율이 대폭 인하되면 예정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9월에서 10월 사이 일부 상품에 대해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이라며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져있고 금융당국이 현재 3.25%인 표준이율을 2% 초반까지 낮출 전망이어서 새롭게 판매되는 상품이나 기존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저금리 기조에 책임준비금에 대한 이율까지 낮아져 10월 중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인상폭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광복절 특사 건설사들, 담합 근절할까?

정부, 2008곳 행정처분 해제 업계, 자정통해 윤리경영 다짐

2013년 발족 TF팀 성과 없어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우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담합 등으로 관급공사 제한 처분을 받은 2008곳의 건설사에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부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2014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준법경영·공정경쟁',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쓰인 수건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건설업체의 입찰제한 징계를 해제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앞으로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정노력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입찰담합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008곳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또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업무정지·자격정지도 풀었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14일부터 해제되고, 이날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담합사실을 신고한 건설업체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단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된다.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조치에)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형 건설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일시에 해제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에 참가해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보고, 과징금 감면으로 이중 특혜를 누렸다"면서 "마지막 제재 수단인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마저 해제하는 특혜성 사면을 단행해 시장경제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사 담합도 최근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 담합이 적발된 건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등 10건이 넘는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43개사에 78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가 추진하기로 한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 2013년 말 건설업체의 공정경쟁과 자정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업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는 건설산업의 윤리경영과 담합 방지 등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담합근절 대책을 비롯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TF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4대강 입찰 담합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건설업계가 그간 자정노력을 통해 진행한 부분이 없는데도 특별사면을 해 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흥역 더샵, 공간활용 극대화 설계

포스코건설

전가구 안방 드레스룸 설계 주방엔 멀티 다용도실 조성

기흥역 더샵 투시도.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에 공급하는 '기흥역 더샵'에 특화설계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7개동 1219가구(전용면적 72~172㎡)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175실(전용면적 59㎡) 등 총 1394가구로 이뤄진 주거복합 단지다.

모든 가구에는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됐다. 이 드레스룸은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이 설치됐다. 주방 후면에는 입식 빨래봉과 수납장, 전자동 빨래건조대 등 멀티 다용도실이 조성된다. 자녀방마다 붙박이장도 1개씩 제공된다.

수납공간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72C㎡와 84AB㎡의 경우 레저용품과 아웃도어 의류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다용도 현관 창고장이 설치된다.

이 밖에 안방의 길이를 3.3m 이상으로 설계해 와이드장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LDK 구조(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된 형태)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확장 시 중대형에서 거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25번지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분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삼성물산

베트남서 공공도서관 착공 400㎡·2층, 내년 1월 준공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베트남 중부 하띤성에서 공공 도서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베트남 중부 지역 하띤성 끼안시 사 지역에 건립하는 이 도서관은 400㎡, 2층 규모다. 준공은 오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준공 후 도서관 운영이 정착되기까지 도서 반입을 지원하고 열람실과 전자도서실을 조성한다. 일정기간 동안 현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독서 장려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김형석 기자

GS건설 "견본주택서 테라스 활용팁 배우세요"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20일부터 체험 이벤트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투시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오는 20일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전용면적 84~115㎡ 268가구 규모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 121가구 ▲107㎡ 119가구 ▲113㎡ 26가구 ▲115㎡ 2가구로 구성된다. 내부는 4~4.5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전용 107㎡D 주택형의 경우 3면 개방형에 약 160㎡의 테라스가 있어 전용면적보다 약 50㎡가 더 넓은 공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세대 전면폭을 100% 활용해 1층 테라스 면적이 보다 더 넓고, 2층과 3층에도 테라스가 제공된다. 인기가 가장 높은 4층은 복층형으로 설계되고, 1층 하부의 지층형 테라스 세대는 전면이 채광이 되면서도 약 6m 넓이의 광폭 테라스가 제공된다.

GS건설은 이번 분양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2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플로리스트인 최문정씨의 플로워스타일링 강연을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자 중 오전, 오후 각각 8명의 당첨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21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테라스하우스 정원 디자인 강연이 열린다. 가든 디자이너인 이필주씨가 진행하는 이번 강연에는 추첨을 통해 8명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22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테라스라이프 요리 만찬'이 진행된다. 힐튼호텔 28년 경력 양재전 쉐프가 견본주택 테라스에서 직접 요리를 한다. 이 이벤트는 테라스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응모에 당첨된 5팀(1팀 당 4명 참석가능)에게 제공된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홈페이지(www.ggt-xi.co.kr)에서 이벤트 응모하기 클릭 후 퀴즈를 풀면 된다. 퀴즈를 푼 고객은 자신이 듣고 싶은 강연을 선택한 다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보인 GS건설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분양소장은 "틀에 박힌 견본주택 이벤트가 아닌 생생한 체험형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이 테라스하우스의 장점과 특별함이 어떤 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글로벌 IT업계 '생존경쟁'… 韓 기업도 압박

HTC·MS·퀄컴 등 대규모 해고 구조조정
삼성·LG전자도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밀리면 끝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가 본격적인 벼랑 끝 생존경쟁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뒤처진 기업들이 감원 카드를 꺼내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최근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외신과 IT업계에 따르면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는 직원의 15%를 해고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HTC의 감원 규모는 2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HTC가 이 같은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은 잇단 실적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HTC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의 레퍼런스 폰을 제조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나 이후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밀렸다.

앞서 지난달 초 마이크로소프트(MS)도 7800명 감원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MS는 1만8000명을 해고했다. 이들 대부분 휴대전화 사업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핀란드의 노키아를 인수하며 휴대전화 사업을 추진한 MS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손실만 떠안았다. MS의 윈도폰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데 실패했고, 존재감도 미미했다.

HTC One M9. /HTC 제공

이밖에 레노버와 퀄컴 소니, 블랙베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올해 들어 잇달아 직원들을 정리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다. 혁신제품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결국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분기에 양사 모두 당초 전망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내놨다. 시장 환경 악화 등 3분기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업 모두 한 때 글로벌 순위권을 다투던 회사들이다. 그러나 시장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면서 점차 밀렸다"며 "중국업체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베일 벗은 갤노트5… 배터리 '일체형'

5.7인치 대화면·삼성페이 탑재
SD슬롯 없어 메모리확장 불가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노트5'(사진)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두 제품을 공개했다.

'갤럭시노트5'는 2011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제품으로 5.7인치의 대화면과 S펜을 탑재했다.

'갤럭시노트3'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5.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오고 있다.

'갤럭시노트5'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4'와 비교할 때, 삼성전자가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배터리의 경우 '갤럭시노트5'는 일체형을 택했다. 배터리 용량은 3000mAh이며 일체형이다. 반면 '갤럭시노트4'는 교체가 가능한 탈부착식으로 용량은 3220mAh이다.

'갤럭시노트5'의 배터리는 용량이 전작보다 더 줄어들었지만 사용자 스스로 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갤럭시노트5'는 32GB, 64GB 등 두 가지 내장 메모리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마이크로SD 슬롯이 없어 추가 메모리 확장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국내 이달 20일, 미국 내달 28일에 정식으로 출시한다.

지난 4월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6' 시리즈부터 삼성페이가 탑재됐다. '갤럭시노트5'는 공개 시기와 장소에서도 확연히 차이점을 드러낸다.

'갤럭시노트4'는 지난해 9월 3일(현지시각) 독일에서 국제가전박람회(IFA) 개최 전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됐다. 통상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IFA 개최 시기와 맞물려 공개됐다.

반면 '갤럭시노트5'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과거 2013년 3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S4'를 공개한 바 있다.

'갤럭시S4'는 누적판매 7000대로 갤럭시 시리즈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제품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를 통해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갤럭시S6' 시리즈의 부진을 털고 다시 한 번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는 이달 중순부터 전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euni71@

갤노트5·S6엣지+, 삼성페이 맞춰 20일 출시

국내시장 시너지 극대화 전략
21일 북미 · 28일부터 中·日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가 삼성페이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20일 국내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된다.

이상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무선사업부의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신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면서 "출시 시점은 2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출시일을 20일로 잡은 것은 그날로 예정된 '삼성페이' 국내 상용화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엣지+(왼쪽)와 갤럭시노트5 이미지.

두 제품은 갤럭시S6 시리즈에 이어 삼성페이가 탑재되는 3, 4번째 모델인 만큼 삼성페이의 초반 흥행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두 제품은 21일 북미를 시작으로 28일부터는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시된다. 유럽 출시는 9월 초로 잡혔다. /양성운 기자 ysw@

美 패션화보서 '삼성 기어S2' 실사 공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S2'의 실제 모습이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공개와 함께 기어S2의 모습이 담긴 패션 화보를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내달 3일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할 기어S2의 실제 모습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이번 화보에는 세계적인 패션 사진작가들이 신제품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찍은 사진이 실렸는데 기어S2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다수 있었다. 감성을 주제로 스티븐 클라인 외에 크리에이티브 감독 스티븐 강이 이번 화보의 콘셉트 발굴과 제작을 맡았다.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와 샤오웬 주가 열정, 도전, 행복 등의 감성을 표현했다.

화보에서 보이는 기어S2의 모습은 앞서 티저 영상에서도 공개됐던 것처럼 원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실제 시계와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

베젤(테두리) 부분은 금속, 스트랩은 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어S2는 베젤을 원 모양으로 돌리면 명령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시계처럼 기기 측면에 용두 모양의 크라운을 단 애플워치와는 다르다. /양성운 기자

벨라 하디드가 삼성전자 갤럭시 패션화보를 통해 기어S2를 선보이고 있다.

16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출시 1주년을 맞이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파워봇'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 '파워봇' 1년 만에 프리미엄 시장 삼켰다

점유율 90% 기록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파워봇'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만5000대에 도달하며 가격 7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삼성전자가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겨우 1% 정도의 비중에 그쳤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는 파워봇 출시 이후인 작년 하반기 약 20% 비중으로 커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50%까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광복 70주년 기념 '힘내라 대한민국' 감사 대축제에서 파워봇 행사모델을 구매하고 구형 로봇청소기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 쏘나타, 급발진 사고 1위 '불명예'

현대 그랜저·르노삼성 SM5 뒤이어
사고 책임은 美 '업체'·韓 '운전자'

현대자동차의 대표 모델인 쏘나타(사진)가 최근 5년 7개월 동안 급발진 사고가 가장 많은 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주력 세단 그랜저는 쏘나타의 뒤를 이었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쏘나타는 총 72건의 급발진·급가속 사고가 접수됐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그랜저는 46건으로 쏘나타의 뒤를 달렸다.

르노삼성자동차 SM5의 경우 45건으로 그랜저와 1건 차다.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모델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쏘나타 72건 △그랜저 46건 △아반떼 16건 △에쿠스 14건 △싼타페 13건 △제네시스 10건 △스타렉스 10건 △포터 8건 △투싼 7건 △트라제 2건 △i30 1건 △i40 1건 △엑센트 1건 △티뷰론 1건 △겔로퍼 1건 △테라칸 1건 △다이너스티 1건 △베라크루즈 1건 △리베로 1건 △뉴파워트럭 1건 등 총 208건으로 집계됐다.

기아자동차는 △쏘렌토 16건 △스포티지 10건 △K5 9건 △모닝 8건 △로체 7건 △오피러스 5건 △K7 4건 △K3 3건 △포르테 3건 △K9 2건 △프라이드 2건 △레이 2건 △카니발 2건 △카렌스 2건 △엔터프라이즈 1건 △옵티마 1건 △포텐샤 1건 △봉고 1건 등 총 79건으로 조사됐다.

르노삼성은 △SM5 45건 △SM3 21건 △SM7 4건 △QM5 1건 등 총 71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의 경우 △스파크 6건 △올란도 6건 △매그너스 5건 △마티즈 4건 △토스카 4건 △윈스톰 3건 △크루즈 2건 △알페온 2건 △라노스 1건 △라세티 1건 △말리부 1건 등 총 35건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는 △액티언 8건 △코란도 7건 △체어맨 6건 △렉스턴 5건 △카이런 2건 △로디우스 1건 △무쏘 1건 등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서 제시해야 된다. 미국은 반대로 운전자의 논리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며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정 판결에서 승소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던 승용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가솔린 엔진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에서 약 95%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신고 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1년에 약 100건 정도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규모인 1000~2000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 휴일·주말도 '365일 정비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휴일·주말에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열린 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고객들이 평일에는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휴일·주말을 이용해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일에 사고나 고장 발생 시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대차 보유 고객은 365일 중 원하는 날짜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 고객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협력업체인 블루핸즈 역시 4월부터 서울·분당 지역 63개소에서 시범 운영해 온 것을 이달부터 수원과 전국 6대 광역시의 1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대차 고객이 휴일·주말에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열린 정비 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모비스도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객만족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각 사업장 간의 적용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찾아가는 365일 시승 서비스'에 이어 고객을 위해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기아차 '2016 K7' 출시… 고급사양 기본화·편의 강화

기아자동차는 '2016 K7'을 17일 출시한다.

기아차는 HID(고휘도방전) 헤드램프와 LED(발광다이오드) 포그램프를 기본사양으로 적용했다.

또한 19인치 알로이휠 사양을 단독으로 운영해 가격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기아차는 2016 K7 하이브리드 전 트림에 블랙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화이트 컬러는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기아차 측은 "K7의 고객특성에 맞춰 외관 고급화 사양을 기본 적용한 2016 K7을 출시하게 됐다"며 "고급사양을 기본화하고 고객 선택 편의를 강화한 2016 K7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K7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6 K7의 판매가격은 ▲가솔린 2.4 프레스티지 2984만원 ▲가솔린 3.0 프레스티지 3280만원 ▲가솔린 3.3 노블레스 3902만원이며 ▲하이브리드 럭셔리 3427만원(세제혜택 후)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575만원(세제혜택 후)이다. /정용기 기자

강력한 힘과 정숙성… 대형 세단의 기준

시승기

쉐보레 임팔라

5m길이·최고출력 309마력
에어백 총 10개 기본 적용

쉐보레 임팔라는 '사전계약 물량 완판'으로 인기를 증명했듯 대형세단 시장에서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해 14만대 이상 팔려 베스트셀링카가 됐고 10세대 모델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13일 전남 여수공항에서 처음 만난 임팔라는 5m 길이의 긴 차체가 눈에 띄었다.

이날 시승한 차는 임팔라 3.6ℓ V6 SIDI엔진이 탑재된 3.6 LTZ 모델이었다.

이 큰 덩치에서 최고출력 309마력·최대토크 36.5kg의 힘이 나온다. 큰 덩치와 강력한 힘은 검정색과 잘 어울린다. 출시된 외장색은 검정, 흰색, 은색 세 가지다. 한국지엠은 연내에 외장색을 추가할 방침이다.

임팔라는 고속주행에서 요란하지 않다. 200km/h의 속도에서도 임팔라는 도로에 '착' 달라붙어 조용하고 강하게 뻗어나갔다. 서스펜션도 안정적인 고속주행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도왔다.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 후륜에는 알루미늄 4링크타입 서스펜션이 탑재됐다.

시승코스는 여수공항을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를 지나 사우스케이프 리조트까지 도심·고속·곡선·오르막 구간 등을 다양하게 시험해 볼 수 있었다.

도심·와인딩·컨트리 등의 구간에서는 평균연비가 7.5km/ℓ 수준이었다. 고속구간에서는 11.3km/3ℓ이었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력도 인상적이었다. 3.6 LTZ 모델에는 벨트방식의 랙 타입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는 민첩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성능을 도왔다.

경사가 다소 심한 오르막 구간에서는 36.5kg·m의 토크가 묵직한 힘을 발휘한다.

180cm·190cm 체격의 건장한 남성이 동승했는데도 힘에 부족함이 없었다.

쉐보레 임팔라의 방향지시등은 노란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표시돼 타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등인지 방향지시등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또 여성 운전자들은 임팔라의 긴 차체 때문에 주차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팔라의 트렁크는 골프백이 4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535ℓ의 적재공간을 제공한다.

임팔라는 지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신차평가에서 안전성 부문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지엠은 임팔라를 한국에 들여오면서 한국 소비자 특성에 알맞은 안전·편의사양을 대거 추가했다.

에어백 표시를 차량 내부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임팔라에는 앞좌석을 포함해 운전석과 동반석 무릎 에어백까지 총 10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이외에도 첨단 각종 첨단 주행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다. 임팔라의 판매가격은 2.5L LT 3409만원, 2.5L LTZ 3851만원, 3.6L LTZ 4191만원이다.

/남해=정용기 기자 yonggi@

당 신 의 화 장 대 에 일 어 난 놀 라 운 기 적

화장대를 부탁해

8월 20일 |목| 밤 9시
첫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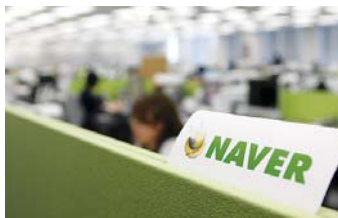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네이버·다음카카오, 하반기는 '선택과 집중'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국내외시장을 놓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반면, 다음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보다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요 4개국과 중동지역 국가 등 전략적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아 라인 앱 구동이 버겁게 느껴지는 비주력시장은 집중적인 영업보다는 라인 라이트 버전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주력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라인 라이트(Line Light)'는 네트

"주요 4개국·중동지역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워크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필리핀, 베트남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이미 라인 라이트가 출시됐다. 라인 라이트는 저사양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수 증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와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출시에 집중한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 국내 모바일 플랫폼 장악"

7월말 네이버가 시범서비스로 선보인 스타 라이브동영상 서비스 '브이'(V)가 전세계 170개국에서 동시에 출시됐다. 네이버의 이같은 해외시장 공략과 확장에는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4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2억1100만명에 달하는 월간활성이용자(MAU)를 확보한 라인이 밑거름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앞세워 외연을 넓히고 있다. 7월말 중국 상하이 중심지인 신천지에 연면적 400㎡(120평)의 중국 1호 '라인프렌즈 카페&스토어'를 오픈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홍콩에도 매장을 열었다. 라인프렌즈의 캐릭터 관련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호 매장을 오픈했던 지난해 2분기 1683억원이었던 네이버의 콘텐츠 매출은 올 2분기 2131억원으로 1년 만에 26.6% 증가했다. 전분기 2000억원에 비해서도 6.5% 증가하며 네이버의 핵심 신사업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다졌지만 글로벌 시장입지는 약한 편이다. 올 2분기 카카오톡의 글로벌 MAU는 4807만명으로 그 중 국내 이용자가 80%(3866만명)를 차지한다. 국내 이용자층을 토대로 다음카카오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의 국내 모바일 플랫폼 장악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다음카카오는 기사 회원 14만명을 확보한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수익화 작업에 돌입한다. 10월부터 기존 카카오택시 앱에 '고급택시'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결제 방식이나 호출 구조는 추후 확정되는데,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9월 말 예비인가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지난 13일 세종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내 박스쿨에서 진행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교원양성 교육에서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스마트로봇 '아띠'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로봇 기반 '코딩스쿨' 실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텔레콤이 올 상반기 세종시 소재 연동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에 이어 세종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종센터와 SK텔레콤은 지난 6~7일, 13~14일 2회에 걸쳐 세종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 코딩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 대한 세종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연수 이후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결과 (연수프로그램 운영부분 5문항, 연수환경부분 5문항), 교사(1차 교육 참가자)들은 10명 전원이 10개 문항 모두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 교사들은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아띠' 등 초등학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실제로 외부 교육 기관(건국대학교)을 통한 '스마트로봇 기반 코딩스쿨 교육 효과성 연구' 조사 결과 코딩스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의성에서 향상이 있었으며, 민감성과 지각력 등 로봇의 움직임과 프로그래밍의 제반 명령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장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센터와 SK텔레콤은 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동호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후속 교육을 통해 스마트로봇 코딩 스쿨 교육 확산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LG그룹 "저신장증 어린이에게 희망을"

21년째 성장호르몬제 지원

LG그룹이 21년째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지원사업을 통해 저신장증 어린이 1096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LG그룹은 저신장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성장호르몬제를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LG복지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된 35명을 포함한 총 115명의 저신장증 어린이들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을 지원했다. LG는 1995년부터 올해로 21년 동안 총 1096명의 어린이에게 약 80억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기증해 왔다.

LG그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

LG복지재단은 1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가졌다.

년 평균 4㎝ 미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신장증 어린이가 LG복지재단의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지원 사업을 통해 평균 2배(8㎝) 이상, 최대 6배(23㎝)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현회 사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LG가 우리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사업은 LG가 개발한 제품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올레드TV, 4년 연속 'EISA 어워드' 수상

LG전자 올레드 TV가 유럽 영상음향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LG전자는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European Imaging and Sound Association)가 지난 15일 65인치 LG 울트라 올레드 TV(65EG960V)를 '유럽 홈 씨어터 TV(EUROPEAN HOME THEATRE TV)'로 선정했다고 16일 전했다.

EISA 어워드는 유럽 20여개국의 유력 AV 전문지 편집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 디자인 혁신성 등을 평가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영상음향분야 상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수상작은 1년간 유럽 시장에서 EISA 어워드 로고를 쓸 수 있다. EISA 측은 LG 울트라 올레드 TV에 대해 "깊은 블랙과 명암비가 보여주는 최고의 화질에 감명받았고 얇은 디자인과 편리한 웹OS 운영체제도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이인규 LG전자 TV/모니터사업담당 전무는 "LG 올레드 TV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올레드 TV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EISA 어워드에서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를 비롯해 슈퍼 울트라HD TV, LG G4, LG 워치 어베인 등 4개 제품이 상을 받았다. 슈퍼 울트라HD TV는 유럽 스마트 TV 부문에서 수상했다.

전략 스마트폰 LG G4는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인정받아 '유럽 스마트폰 카메라(European Smartphone Camera Award)'로 선정됐다.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은 '유럽 웨어러블 기기(European Wearable Device Award)' 부문에서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이맹희 CJ명예회장 시신, 이번주 초 운구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서 조문
이재용-CJ 화해무드 관심

고(故) 이맹희(사진)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이르면 이번주 초 국내로 운구된다.

16일 CJ그룹에 따르면 당초 다음주 주말로 예상됐던 이맹희 명예회장의 운구 일정이 이번주 초로 빨라질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운구 절차는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현재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월요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 운구할 예정이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CJ그룹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차리기로 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주거지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 상태다. 빈소 조문은 18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맡는다. 하지만 이 회장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에서 조문객을 직접 맞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세금 탈루,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된 후 심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고 있는데다 수술 후 거부반응,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며 건강이 더욱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거듭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장손인 이선호 씨가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CJ와 삼성이 '조문 회동'을 통해 화해의 길을 열어갈 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맹희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이면서도 부친인 호암 이병철 창업주에 의해 무능하다는 이유로 경영에서 배제됐으며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긴 뒤 반세기에 걸쳐 갈등을 겪는 등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유로 CJ그룹과 삼성그룹의 사이도 좋지 않다.

2012년에는 이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양 그룹 간 미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이는 급격히 악화됐다. CJ그룹은 또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두고 삼성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가 3세인 이재현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으로 껄끄러운 사이일 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허물없이 충고와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로 전해진다. 특히 둘 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점과 자동차광 등이라는 비슷한 점들이 많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이재현 회장은 삼성과의 유산 분할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던 지난 2013년 아버지를 찾아 항소를 만류하고, 항소심 직후에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일본에서 치료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가 상고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J그룹과 삼성그룹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 범삼성가가 2014년 8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별세를 계기로 삼성가와 CJ의 화해모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장례식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삼성그룹 내 고위 관계자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큰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 양 그룹 간 사이가 자연스럽게 회복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마트, 책가방 새 학기 대전 롯데마트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새 학기를 앞두고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선보였다.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 77개 점포에서 아동용 가방을 5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마른 장마에 국산 과일 매출↑

가격·당도, 소비자 충족시켜

올들어 국산 과일 판매가 늘고 있다.

16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최근 3년 간 6~8월 국산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수박·참외·복숭아·자두 등의 판매가 전년보다 18.4% 신장했다.

2014년까지 하절기 품목별 매출 동향은 수입 과일이 인기를 끌며 국산 과일은 하락세를 보여왔다.

국산 과일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올해는 7월까지 지속된 마른 장마로 인해 여름 제철 과일들의 당도가 더욱 높아져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여름엔 태풍 피해가 적었고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 호조로 가격이 하락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숭아의 올해 총 생산량은 21만 8000톤으로 지난해 보다 4% 증가했고 '복숭아 백도(4.5kg/상)'의 7월 도매가는 전년 대비 12% 가량 하락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급증한 국산 과일 수요를 고려해 매주 제철 국산 과일을 정상가 대비 20~3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인다. 19일까지는 국내산 캠벨 포도(5kg/1박스)를 1만원에, 거봉 포도(2kg/1박스)를 9900원에, '당도선별 연두사과(8~12입/1봉)'를 6000원에 엘포인트(L.POINT)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가 대비 20% 할인 판매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는 고당도 황도 복숭아(4~7입/1박스)를 9900원에, 햇 배(4~8입/1박스)를 1만원에 판매한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이랜드, 대만에 최대 규모 복합관 오픈

스파오·미쏘·루고 등 입점
2020년 100여개 매장 목표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중국과 홍콩에 이어 대만에 국내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의 복합관을 오픈했다.

이랜드그룹은 대만의 대표 쇼핑거리인 충효로에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스파오와 미쏘, 커피브랜드 루고 등으로 이뤄진 SPA 복합관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랜드는 2009년 국내 SPA 브랜드 '스파오'를 론칭한 뒤 패션 전 영역으로 SPA 브랜드를 확장 중이다.

2013년에는 중국, 2014년에는 홍콩에 스파오와 미쏘를 차례로 론칭했다. 지난해 9월 해외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는 '대만 101타워'에 티니위니, 후아유를 선보이며 대만에 처음 진출했다.

(왼쪽부터) 은혁(슈퍼주니어), 랴오쩐한 웨이펑 동사장, 이특(슈퍼주니어),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조백상 (주)타이페이 한국대표부 대표, 동해(슈퍼주니어), 최종양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장주원 대만이랜드 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랜드그룹 제공

이번에 선보인 SPA복합관은 총면적 2860㎡ 규모로 대만 내 국내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 패션 매장이다.

초기 반응은 성공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지 고객들의 요청으로 지난 달 중순기 오픈해 일주일 동안 8만여 명의 고객이 매장을 찾았고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랜드그룹은 대만 지상파 채널인 CTV와 유명 일간지 리버티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관계자는 "대만 역시 소비자들의 패션 소비트렌드에서 SPA가 자리 잡은 상황이며 이미 글로벌 SPA가 모두 들어와 격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라며 "패션뿐만 아니라, 리빙, 슈즈, 외식 등 다양한 컨텐츠로 SPA 매장을 차별화한 복합관 형태로 선보여 향후 2020년까지 100여 개의 매장에서 연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옥션 "미리미리 스키 시즌권 준비하세요"

'HOT'한 계절 'COOL'하게 즐기자!

옥션(대표 변광윤)이 17일부터 'HOT한 계절 COOL하게 즐기자!' 프로모션을 통해 스키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

대명비발디 파크·웰리힐리 파크·하이원 리조트 등 국내 대형 스키장의 시즌권을 만나볼 수 있다.

대명 비발디파크 시즌권은 정가는 30만원이며 28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선착순 쿠폰 종료 후에는 5% 할인한다.

웰리힐리파크 시즌권도 내달 6일까지 대인권 기준 33만원, 여성 및 소인권 기준 22만원에 판매한다.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1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김성현 기자 minus@

'주말N쇼핑' 이벤트 진행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17일까지 주방세제 10종을 증정하는 '주말N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17일 오전 2시까지 TV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상품을 2개 이상 주문하고 입금 완료 시 주방세제 10종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G자연퐁 솔잎으로 설거지하기(500g)' 2개에 리필용(200g) 8개, 10개가 제공된다. 사은품은 구매 결정이 확정되는 9월 3~4일 별도 배송된다. /박상길 기자

홈플러스, 휴가철 막바지 '와인장터' 오픈 16일 홈플러스 강서점 와인장터에서 모델이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막바지 휴가객을 위해 9월 말까지 인기 와인 40여종을 최대 60% 할인하는 와인장터를 연다. /홈플러스 제공

식품업계, 인천공항서 '격전'

CJ·SPC 등 5개 업체 입점
임대료 비싸지만 홍보 톡톡
'컨세션' 시동 즐거운 비명

국내 대표 거리 먹거리들로 구성한 아모제푸드의 'K-스트리트 푸드'. /아모제푸드 제공

16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 위치한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 엠넷'. 막바지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떠나는 듯한 젊은 연인, 가족 단위 여행객, 중국·일본 등지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컨세션(Concession)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컨세션 사업이란 공항, 철도, 휴게소,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특수 상권으로도 불리는 이 상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인구가 보장되고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인천공항 식음료 사업자 입찰을 따낸 SPC, CJ푸드빌, 아워홈, 아모제푸드, 풀무원 이씨엠디 등 5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4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천공항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외식업체들에게 더할나위없는 글로벌 홍보의 장이다.

CJ푸드빌은 올해 초 인천공항 식음료 사업자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에 위치한 랜드사이드(Land Side) 구역 식음료 운영권을 따냈다. 이곳은 보딩 패스를 끊고 들어가기 전 여행객 뿐 아니라 방문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천공항 내 최다 이용객이 방문해 노른자 공간이라고도 불린다.

CJ푸드빌은 최근 이곳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비비고·빕스·뚜레쥬르·투썸커피·투썸플레이스 등 매장 6개를 오픈했다. 9월까지 직영 브랜드를 포함해 총 25개의 매장을 오픈해 인천공항을 CJ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엠넷(Mnet)과 CGV와 결합한 '투썸플레이스 엠넷(Mnet)' '투썸플레이스 CGV' 등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SPC그룹은 출국자만 출입이 가능한 3층 출국장내 에어사이드 구역을 맡았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주요 브랜드 뿐 아니라 지금까지 켄세션 사업을 선보이지 않았던 라그릴리아, 커피앳웍스, 스트릿 등의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여 총 30여 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 에어사이드는 국내여행객 뿐 아니라 환승 외국인들에게까지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 글로벌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최근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즐기는 미식여행'을 콘셉트로 동서양 18가지 브랜드 맛집으로 구성한 외식 공간인 '푸드엠파이어'를 개장했다. 10월 중 정갈한 한식반상 '손수헌', 오리지널 신주쿠 돈카츠 '사보텐', 할랄푸드 '니맛', 한식 패스트푸드 '밥이답이다' 등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4층 전문식당가를 확보한 아모제푸드는 최근에 분식, 치킨, 라면 등 국내 대표 거리 먹거리들로 구성한 'K-스트리트 푸드'를 선보였다. 지난달에는 국내 유명 디저트 맛집들로 구성한 '고메 디저트'를 오픈했다.

풀무원 계열 외식기업인 이씨엠디도 한식 면 전문점 '풍경마루'와 아메리칸 캐주얼 중식당 '칸지고고'를 개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높은 임대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입찰에 참여하고 매장 오픈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정통 비비안맨' 김진형 대표이사 별세

영업사원 입사 후 CEO 올라
빈소 삼성의료원·오늘 발인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14일 오후 4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60세다.

남영비비안은 이날 "김진형 사장이 폐암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오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1955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김 사장은 1978년 남영비비안에 입사했다. 영업 사원부터 이사, 상무, 전무이사를 거쳐 40대 중반이던 2002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정통 비비안맨'으로 영업맨의 신화로도 불린다.

김 사장은 기업인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비상임이사에 선임돼 4년 동안 활동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감사, 한국패션협회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승희씨와 아들 현기씨, 딸 나영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금강제화 '랜드로바 그랜드슬램' 출시

금강제화가 가을 시즌을 겨냥해 '랜드로바 그랜드슬램'(사진)을 16일 출시했다.

랜드로바 그랜드슬램은 테니스 코트화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한 디자인에 세련미가 느껴지는 가죽 소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니커즈·하이탑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이트·블랙·골드 등 9가지 색상으로 선보였다. 총 21종인 랜드로바 그랜드슬램은 전국 금강제화와 랜드로바 매장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18만8000원부터 20만8000원이다. /김수정 기자

블랙야크, 전국 명산 태극기 퍼포먼스

아웃도어 기업 블랙야크(대표이사 강태선)는 광복절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전국 명산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광복 70주년 명산100 태극기 휘날리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퍼포먼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태극기 게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블랙야크가 선정한 전국 명산에 올라 태극기를 들고있는 인증사진을 업로드 하면 되며,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인 마운틴북 3.0으로도 바로 현장에서 인증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블랙야크 포인트부터 태극기 도전단 기념패치, 블랙야크 헤리티지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상길 기자

G마켓 '무한도전 가요제 앨범' 예약판매

G마켓(대표 변광윤)이 오픈마켓 단독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2015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앨범 2차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약판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주문이 완료된 앨범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가격은 9900원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화장품 OEM·ODM, 브랜드사업 '외도'

수입 라이센스 취득·법인 설립
B2C홍보·유통채널 확보 관건

ODM업체 코스온은 아가타 코스메틱으로 상반기 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타 업체 화장품을 생산해 오던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들이 브랜드 사업으로 외도(外道)에 나섰다. 기존 제조 사업 역시 중견 업체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경쟁이 치열해져 신 성장동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수입 브랜드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법인을 따로 설립해 기존 화장품 제조업 외에 본격적인 자체 브랜드 운영에 나선 것이다.

16일 ODM 업체 코스온에 따르면 상반기 아가타 코스메틱으로만 약 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신생 브랜드인 아가타 코스메틱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코스온은 2013년 강아지 모양 주얼리로 유명한 프랑스 아가타의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유통·판매 라이센스를 취득, 지난해 말부터 코스메틱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12개국의 아가타 코스메틱 판권을 코스온이 갖고 있다.

코스온 관계자는 "아가타 제품은 100% 코스온에서 생산하며 홈쇼핑에서 판매가 잘 되면서 올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코스온 전체 매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말 패치 전문 제조업체 아이큐어와 합작법인 코스맥스아이큐어를 설립했다. 지난달부터 화성시에 제조 공장이 시험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채비를 마쳤다. 코스맥스가 마스크팩 전문 업체와 손잡은 것은 중국인 수요로 인해 마스크팩 시장이 급성장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코스맥스는 하반기부터 하이드로겔 등 다양한 소재의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이들은 R&D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차후 소비자 대상 마케팅·유통 채널 확보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가 경쟁이 치열한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전문 업체들은 B2B(기업 대 기업 간 거래) 쪽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B2C(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 쪽에서는 영업망·마케팅 등이 아무래도 기존 업체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조선은 일본에 대마도를 준 적이 없다”

|신간| 대마도의 진실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
우리나라 영토 수호 강조

부산에서 배로 1시간 30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외국 땅이 있다. 바로 일본 땅, 대마도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마도에는 실제 일본인보다 한국인 방문객이 훨씬 많다.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대마도를 많이 찾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대마도에 고스란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고 시대부터 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또한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파되는 문물의 중간 기착지였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징검다리 역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삼국 시대 이래로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속한 우리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일본은 대마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 그리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전해 오던 일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신간 '대마도의 진실 :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는 대마도를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의 장소 인식을 되짚어 봄으로써 대마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탄생했다.

두 저자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 그런 만큼 책의 가장 앞부분에서는 대마도를 지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대마도가 지니는 장소적 특징을 비롯해 지명 유래, 풍토, 사람들의 생활, 지리적 여건 등을 정리했다.

또한 대마도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단위인 6개의 마치(町)를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남쪽의 이즈하라마치부터 대마도의 북쪽 끝에 자리한 가미쓰시마마치까지 각 마치가 지니는 자연적·인문적 특징과 함께 각 마치 내에서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주요 마을을 소개해 우리 역사 속의 대마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지도를 제시해 과거 대마도의 모습을 살펴본 부분이다.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방법인 지도를 통해 대마도에 대한 장소 인식의 변화를 파악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물론 외국에서 제작된 고지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지도 상에 대마도가 어떻게 묘사됐으며, 어느 나라에 속한 땅으로 표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은 머리, 대관령은 척추, 대마도와 제주도는 양발이다."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대동총도(大東摠圖)에 포함된 설명문에는 "백두산은 머리이고 대관령은 척추이며 영남 지방의 대마도와 호남 지방의 탐라(제주도)를 양발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간주해, 한반도를 인체에 비유한 우리 선조들의 유기체적 국토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발 구실을 했던 섬이다.

이에 저자들은 "일본이 자기들 멋대로 잘라가 버린 우리 영토의 한쪽 발인 대마도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일본에 어떠한 형태로도 넘겨주거나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국 영토와 고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의로 남의 땅이 되어 버린 영토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잃어버린 땅 대마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 와 고토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미래한국영토포럼의 첫 번째 결과물인 '대마도의 진실 :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가 독자들에게 대마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복현명 기자 hmbok@metroseoul.c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비면 스탬프 '꽝꽝'

관광公 '스탬프 투어 이벤트'
3회 찍을때 마다 경품 응모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을 통한 愛도장, 랭킹왕 등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愛도장 이벤트는 '2015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 방문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페이지에서 愛도장을 모아 응모하는 이벤트다.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통해 100선 관광지 방문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愛도장을 클릭하고, 愛도장을 3회 찍을 때마다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망고빙수, 미니케이크 등이 제공되며, 당첨 여부는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愛도장을 모아 빙고 줄을 완성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愛빙고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愛도장을 찍을 때마다 지역의 빙고판이 순서대로 채워지며, 빙고의 가로 또는 세로 1줄을 완성할 때마다 선착순 4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프리팩 100㎖이 증정된다.

한국관광 100선 이벤트. /한국관광공사 제공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또는 visitkorea.or.kr 모바일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여행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직접 관광지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바로 그것.

100선 관광지 중 75개 관광지에서 리플렛을 받아 해당 관광지 스탬프를 찍은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이벤트 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스탬프를 많이 찍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커피음료 키프트카드 등이 제공된다.

관광공사 국민관광기획팀 김용재 팀장은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여행 붐을 조성하는 데에 한국관광 100선 방문 이벤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이대목동병원, 22일 부인암 심포지엄

수도권 서남부 연구회 주최
치료경험 공유·교육 제공

수도권 서남부 부인암 연구회(회장 김승철)가 주최하는 부인암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와 부인암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회원 간 부인암 치료 경험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산부인과 전공의들에게 부인암 치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예방'을 주제로 한 세션 1에서는 남계현(순천향의대), 이재관(고려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HPV 백신의 최신 지견(홍진화 고려의대 교수) ▲HPV Primary Screening(정수호 순천향의대 교수) ▲질 확대경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의 임상 이용(이정윤 연세의대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토론 시간이 이어진다.

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

이어 세션 2에서는 '부인암을 의심하게 하는 임상 상황과 대처법'을 주제로 김홍배(한림의대), 김용욱(순천향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비정상 종양표지인자의 상승(이승호 가천의대 교수) ▲비정상 세포진 검사 결과(이택상 서울의대 교수) ▲비정상 질출혈(박성호 한림의대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수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8월 15일까지 무료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02-2650-5274)로 문의하면 된다. /최치선 기자

男心 저격… 1000만개 판매 돌파

롯데칠성 '마운틴듀 롱넥보틀'
개성있는 컬러·디자인 눈길
남성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마운틴듀 롱넥보틀'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마운틴듀 롱넥보틀(400㎖ 페트)은 감각적이고 개성있는 컬러와 독특한 모양

으로 출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초기에는 매달 약 100만개씩 꾸준히 판매되다가 올해 3월부터 판매량이 급상승하며 약 50% 증가한 150만개씩 판매되고 있다.

마운틴듀 매출도 롱넥보틀이 출시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약 40% 증가한 140억원을 기록했다.

독특한 패키지 때문에 롱넥보틀이 '패션 아이템'으로 남성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고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방송 등과의 협업 마케팅이 인기에 견인한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패키지만으로도 마운틴듀만의 남성적이고 열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롱넥보틀의 성공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강남세브란스, 천포창·유천포창 강좌

피부과 김수찬·이상은 교수
21일 원인·진단·치료 강연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병원 3층 대강당에서 천포창과 유천포창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천포창과 유천포창은 피부에 수포를 형성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피부과 김수찬 교수와 이상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천포창과 유천포창의 원인, 진단·치료에 대해 강연한다.

문의 :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02-2019-2430 /최치선 기자

star bag

로카르노 남우주연상

배우 **정재영**이 홍상수 감독의 17번째 장편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제68회로카르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했다.

中 청두 공연 마쳐

그룹 **빅뱅**이 지난 14일 월드투어 '빅뱅 2015 월드 투어 메이드'의 중국 청두 공연을 마쳤다. 3만여 명의 관객이 모여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18일 생일을 앞둔 지드래곤의 생일축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류승룡과 한솥밥

배우 **유다인**이 류승룡, 문정희 등이 소속된 프레인TP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유다인은 "데뷔 후 처음으로 소속사를 옮기게 됐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 보이그룹 공개

판타지오 뮤직의 새 보이그룹 이름이 **아스트로**로 최종 결정됐다. 판타지오 뮤직은 지난 14일 공식 SNS를 통해 "판타지오의 뉴 보이그룹, 아스트로를 소개합니다"라며 멤버 6인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GMF 2015 컴백 무대

밴드 **삐삐밴드**가 오는 10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5(이하 GMF 2015)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이들은 지난 6월 18년 만에 재결합해 데뷔 20주년 기념 미니음반을 발매했다.

영화 '협녀, 칼의 기억' **전도연**

오랜 기다림 끝에 영화가 개봉된 만큼 홀가분한 마음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협녀, 칼의 기억'(감독 박흥식, 이하 '협녀')의 개봉을 앞두고 만난 전도연(42)은 홀가분함보다 아쉬움을 더 많이 드러냈다.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처럼 연기만큼은 누구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전도연의 입에서 '부족함'과 '포기' 같은 단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부족함 느끼면서 또 성장했죠

'협녀'는 고려 후기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 유백(이병헌)과 그런 유백에게 배신당한 월소(전도연), 그리고 이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소녀 홍이(김고은)의 이야기를 그린 무협 영화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인어공주'에 이어 전도연과 박흥식 감독이 함께 한 세 번째 작품이다. 전도연은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유백과 월소의 절절한 감정에 끌렸다.

"시나리오 속 이야기가 강렬했어요. 그 강렬함 때문에 액션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맹인 캐릭터라는 점도 인지 못할 정도였죠. 유백과 설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있는 캐릭터인 반면 월소는 하나의 감정만으로 끝까지 가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지독한 여자죠. 감독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를 지키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에 저도 동의했죠."

전도연은 "영화에 담겨 있는 월소의 시간은 유백의 배신 이후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내내 월소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유백의 배신 이후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것처럼 월소는 감정도 감각도 거세된 인물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격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장면일수록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속으로 안으려고 노력하면서 연기에 임했다.

영화 속 전도연의 감정 연기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다. 그럼에도 전도연 스스로 '협녀'가 부족하고 아쉬운 작품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맹인 검객으로 보여준 액션 연기 때문이다. 무거운 검을 들고 하는 액션 연기가 쉬울 리 없다. 그런데 전도연은 맹인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눈도 깜박이지 않고 힘든 액션을 직접 소화해야 했다.

> 강렬한 이야기 끌려 선택
> 맹인 검객으로 액션 도전
>
> 아쉬움·부족함 남은 작품
> 배우로서 또 성장한 기회

다. 물론 촬영 현장에서는 모니터로 자신이 연기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완성된 영화를 스크린에서 본 순간 미처 몰랐던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됐다.

"사실 한계에 많이 부딪힌 작품이었어요. 눈을 안 깜박이고 버티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눈을 깜박이는 건 반사신경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죠(웃음). 늘 영화를 처음 볼 때 제 연기만 보여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협녀'는 제 부족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라 상처나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제가 인정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빠르거든요(웃음).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상함을 오래 가져가지는 않아요."

전도연은 '협녀'를 통해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낀 것조차도 배우로서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작품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연기의 부족함과는 별개로 '협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한국적인 무협영화가 더운 여름 관객에게 시원함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암살' 광복 70주년에 1000만 돌파

'베테랑'은 개봉 12일째 600만 기록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난 1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암살'은 1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09만4957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최동훈 감독은 '도둑들'에 이어 '암살'까지 두 작품 연속으로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키게 됐다.

최동훈 감독은 "'암살'을 사랑해주신 관객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나에게는 도전이자 정말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었다. 관객들과 뜻 깊은 소통을 나눈 것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암살'의 1000만 돌파로 출연 배우들도 새로운 흥행 기록을 갖게 됐다. 전지현, 이정재, 김해숙은 '도둑들'에 이어 2번째, 조진웅은 '명량'에 이어 2번째 1000만 기록이다. 최덕문은 '도둑들' '명량'에 이어 3번째 1000만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영화 '암살'

특히 오달수는 목소리로 출연한 '괴물'부터 '도둑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에 이어 6번째로 1000만 영화에 출연한 대기록을 세웠다. 하정우와 이경영은 '암살'로 필모그래피에 처음으로 1000만 영화를 남기게 됐다.

한편 '베테랑'(감독 류승완)은 개봉 12일째인 16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2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름 영화 시장에서 최초로 두 편의 1000만 영화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추신수, 시즌 15호 홈런 꽝!

3타점 3득점 '훨훨' 텍사스 3연승 내달려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와 탬파베이 레이스의 경기. 추신수가 1회초 2루타로 출루했다. 이날 경기는 추신수의 시즌 12호 홈런 등에 힘입어 텍사스가 12-4로 승리했다. /AP 뉴시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시즌 15호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홈런 1개를 포함해 4타수 3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을 3개씩 기록했다.

10-3으로 앞선 7회 2사 1루에서 우완 커비 예이츠의 밋밋한 체인지업을 걷어 올린 것이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아치로 이어졌다. 지난 3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 이래 13일 만에 터진 홈런이다. 시즌 15번째이며 개인 통산 123번째 홈런이다.

추신수는 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곧바로 프린스 필더의 우선상 2루타 때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을 올렸다.

텍사스는 12-4로 대승을 거둬 3연승을 내달렸다. 추신수의 득점은 결승 득점이, 홈런은 쐐기포가 됐다.

2회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5회 볼넷으로 다시 출루한 뒤 팀 타선이 7점이나 뽑은 6회 깨끗한 적시타로 힘을 보탰다. 5-1로 달아난 6회 1사 1, 2루에서는 중견수 앞으로 뻗어가는 깨끗한 1타점 중전 안타로 2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아픈 발목에도 2루 주자 델리노 드실즈와의 더블 스틸로 시즌 3번째 도루를 기록한 추신수는 7-1에서 터진 애드리안 벨트레의 좌중월 3점 홈런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의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는 시즌 21번째로, 3안타 경기는 8번째다. 3타점을 올린 것은 시즌 5번째다.

이날 4번이나 출루한 추신수는 올스타 휴식기 이래 선발로 출전한 19경기에서 모두 출루하는 기록도 이어갔다. 아울러 타율 0.245(380타수 93안타)를 올려 지난 6월 15일(0.244) 이래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시즌 타점은 53개로 늘었다.

한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같은 날 미국 뉴욕의 시티 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방문 경기에서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로 출장해 6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연장 14회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며느리 체험 나선 아이돌

◆ KBS2 '별난 며느리' 오후 10시

한물 간 아이돌 오인영은 재기를 꿈꾸던 중 며느리 체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다. 인영은 종갓집 장손인 수학과 조교수 차명석과 가상 결혼을 하게 된다. 졸지에 종갓집 며느리가 된 인영은 시어머니 종갓집 종부 양춘자 여사와 마주하게 된다. 자유분방하고 도시 생활에 익숙한 인영은 사사건건 꾸중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로 인해 점차 지쳐간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5분

'안녕하세요'에 출연하자고 조르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남자가 출연한다. 방송이 있는 월요일이면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진다며 '월요병'을 해소해달라고 하소연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성 역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토론한다.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남자와 여자가 쓰는 색과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타국의 사례를 들어본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기러기 아빠인 배우 김영호와 가수 김태원이 냉장고를 공개한다. 미각을 잃은 무감각한 남자 김영호를 위해 '맛깡패' 정창욱과 '다크호스' 오세득이 대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6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92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6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50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9회)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66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별난 며느리 (1회)	00 화정 (37회)	00 미세스캅 (5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분노의 역류>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광복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와 함께, 코리아	15 힐링캠프 500인	35 [광복 70년 특별기획]학교 교육 백년사	
24시	20 세계를 바꾼 명탐정 셜록 홈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13회) (재)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스페셜 (1회)			◆ 해외야구 02:10 피츠버그 vs 뉴욕M 04:05 탬파베이 vs 텍사스 05:10 신시내티 vs LAD
19시	55 JTBC 뉴스룸	40 여행해도 괜찮아 (2회)	00 오늘 뭐 먹지? (4·16·23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32회)	50 브로큰 애로우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6회)	35 비법 (1회)	00 사바나의 싸움꾼, 벌꿀오소리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40회)	40 집밥 백선생 (13회) (재)		00 <와일드 헌터>1부. 아프리카의 최상위 포식자		
22시			00 마스터셰프 US 시즌5 (1회) 45 2015 테이스티로드 (26회)	00 대재앙: 네팔 대지진	00 루퍼	
23시	00 비정상회담 (59회)	00 막돼먹은 영애씨 14 (3회)	4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7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에베레스트 죽음의 구역		
24시	30 마녀사냥 (105회) (재)	20 문제적 남자 (22회) (재)	35 로맨스가 필요해 2012 (8회)	00 아시아 헌터 (4회)	20 배트맨 비긴즈	

Chinese opening up exchange rate war?

중국발 환율전쟁 터지나

China executed devaluating its Yuan all of a sudden which caused currency values and stock market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falter. The concern that the world would be put into this exchange rate war is growing.

A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the future exporting businesses will worsen, the exchange rate and the stock market fluctuated two days in a row.

The main reason that The Central Bank of China devaluated the Yuan is because there are now more possibilities for Economic depression.

Korean foreign-exchange market as well as the stock market were very shocked.

The prospect in exports of the consumer goods was comparably bright while our main exporting products like automobiles and electronics were having a tough time in China.

Despite that, it is a dominant outlook that not even can these consumer goods avoid damages.

On the other hand, some say that when exports to China recover due to devaluation in Yuan, our exports would also somehow pick up.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사흘째 이어진 13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원·위안화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표시 돼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와 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가 환율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수출경기를 포함한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환율과 증시가 이틀 연속 요동쳤다.

중국 중앙은행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연이틀 평가절하한 것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분히 수출진흥을 위해 취한 위안화 평가절하에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도 도미노처럼 동반 하락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올 들어 자동차 전자 등 주력수출품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는 와중에도 소비재의 수출전망은 비교적 밝았지만, 이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8			5				2	1
		2	9		1		4	
		6			4		5	
	3	7				4		
			8		2			
		8				3	9	
	7		3			1		
	2		1		8	5		
1	8				5			4

			1		7			
3			6		2			5
		7	3				8	
	5					9	2	
4		9	8	1	5	6		7
	7	3					5	
	3				8	1		
1			5		4			9
			7		1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8	6	4	5	9	3	7	2	1
3	5	2	9	7	1	8	4	6
7	1	6	2	8	4	9	5	3
2	3	7	6	5	9	4	1	8
9	4	1	8	3	2	6	7	5
5	6	8	4	1	7	3	9	2
4	7	5	3	2	6	1	8	9
6	2	9	1	4	8	5	3	7
1	8	3	7	9	5	2	6	4

2	8	6	1	5	7	3	9	4
3	9	4	6	8	2	7	1	5
5	1	7	3	4	9	2	8	6
6	5	1	4	7	3	9	2	8
4	2	9	8	1	5	6	3	7
8	7	3	2	9	6	4	5	1
7	3	5	9	6	8	1	4	2
1	6	2	5	3	4	8	7	9
9	4	8	7	2	1	5	6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의처증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듭니다
올 11월부터 더 심각… 망상분석 치료 필요

의처증 남자 71년 3월 12일 양력 6시

Q 저의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저를 아껴주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부터는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이것저것 저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캐러 다닙니다. 출장을 안 갈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냐고 물어 보고 왜 그곳을 가고 그 사람을 만났냐고 따지는 바람에 제가 우울증이 걸려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이나 후에 남편 이외에 남자를 만난 적 없이 살아 왔는데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의처증도 이혼 사유가 된다지만 아이들이 걱정 입니다.

A 결혼생활에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사랑에 앞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의 기본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인(人)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쪽이 주저앉으면 바로서지를 못하는 것으로 믿음이 없어지면 서로 버티던 나뭇가지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믿음이 없는 것에서 시작 됩니다. 의처증에 대해 남편들은 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라는 변명을 하지만 관심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의처증을 의학용어로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믿고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의처증 환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망상을 '질투망상'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주 구조에 일지와 월시지에는 귀문살(鬼門殺: 귀신이 들락 거리 듯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복돼 있는데 운에서 흉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경쇠약이나 정신이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자신의 사주가 신강(身强)하면 이런 현상에 대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까지 갈 수도 있으니 정신과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할수록 2015년 11월부터 더욱 심해져 2016년은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망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통찰 해주고 분석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지요. 지면상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7일 (음 7월 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60년생** 이를 미루면 후에 큰 일이 닥쳐옵니다. **72년생** 초지를 관철하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마세요.

49년생 마음을 순하게 먹으세요. **61년생** 확실히 유지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이성운이 불리하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직장문제는 잠시 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0년생 치우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져야 실패를 줄 일 수 있습니다. **74년생**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직장인은 다툼을 피하세요.

51년생 적극 적으로 나아가면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63년생**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옵니다. **75년생**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87년생**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됩니다. **64년생** 현재의 고생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됩니다. **76년생**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게 길합니다. **88년생** 약한 자를 정벌하는 것이 최선책 입니다.

53년생 타인과 갈등은 원만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년생** 섣불리 버티지 말고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77년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89년생** 나태한 생각은 버리세요.

54년생 만사가 손에 잡힐 듯하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66년생**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78년생** 조용히 심신을 연마하며 좋은 순간을 준비하세요. **90년생** 기다림을 즐겨 보세요.

55년생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겨 두세요. **67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79년생**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운세입니다. **91년생** 철저한 무저항 주의로 나가야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56년생 지금은 전진할 때가 아닙니다. **68년생** 윗사람에게 실수 우려되니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80년생**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 **92년생** 희망을 이루고,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9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3년생** 먼 곳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58년생 직장운, 금전운 모두 좋습니다. **70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82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59년생 조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71년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그 날을 기다려 보세요. **83년생** 곧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95년생** 노력의 결과가 점점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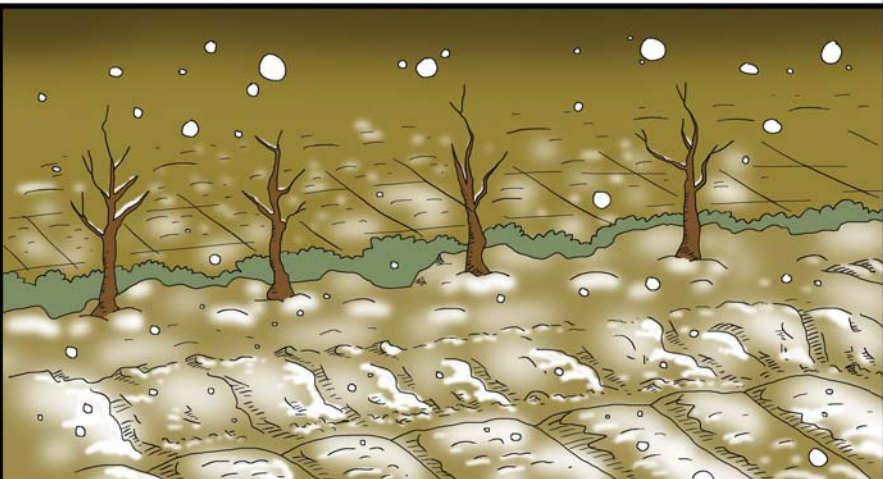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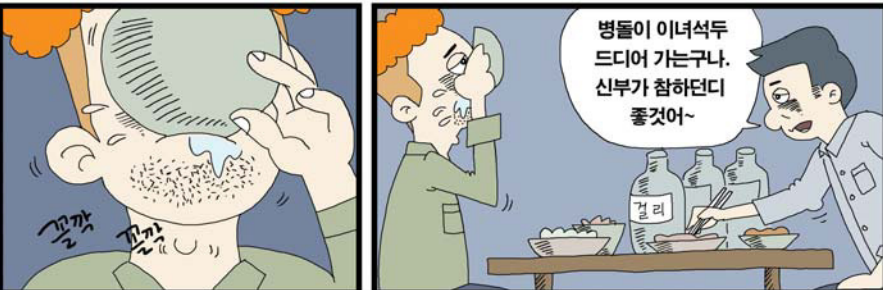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 그림:까시

〈1화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 : 대법원 1997.1.11.선고,76도3419판결,유기치사

형법제275조(유기 치사)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날

피보다 진한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과 '갑질횡포'

최치선의 세상만사

'피와 눈물보다 더 진한 것은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골육상쟁'을 불사한 경영권 다툼과 동아제약 회장의 아들이 벌인 '갑질'을 보면서다.

재벌자제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이어 이번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아들 강정석(51) 동아쏘시오그룹 사장이 주인공이다.

강 회장의 4남이자 3세 경영인인 강정석 사장의 '갑질논란'이 드러난 것은 사건 5개월이 지난 15일 경찰이 7월 22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다.

강 사장의 행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노트북이 껌값이니 마구 부숴겠지? 나이도 적지 않은데, 본인이 한 일이라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인데 그게 갑질할 위치인가 봅니다"는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동아쏘시오그룹은 차남 강문석 전 대표와 4남 강정석 사장의 후계구도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신호 회장과 차남 강문석 전 대표의 지분다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졌고 2008년 구 동아제약 지분 전량을 매도한 후 회사를 떠났다.

이후 강 전 대표는 2011년 우리들제약 인수 등 사업을 확장하려다 경영이 악화됐고, 지난 2012년 12월에는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의 한남동 저택 역시 최근 경매로 넘어가는 등 '비운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형제의 난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가계구도에서 비롯된다. 강신호 회장은 두 번 결혼해 4남 2녀가 있다. 첫째 부인 박정재 씨와 사이에 장남 의석(63) 씨, 장녀 인경(61) 씨, 2남 강문석(55) 전 동아제약 대표, 3남 우석(53) 씨, 차녀 윤경(52) 씨를 뒀다. 그리고 4남 강정석 사장은 둘째 부인 최영숙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사장은 2013년 3월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에서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 후 강 회장의 동아ST 주식 35만7935주(4.87%),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21만1308주(4.87%) 전량을 받고 동아쏘시오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그러나 이번 노트북파손 사건으로 3세 경영인의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달 가까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롯데그룹 왕자의 난 역시 복잡한 가계구도와 돈 때문이다. 이 난의 주인공은 신동빈(61) 대 신동주(62)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대결구도다.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씨를 해임시키려다 오히려 반격을 당해 롯데홀딩스로부터 전격 해임 당하면서부터다.

지난 4일 일본과 한국 내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37개 사장단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신 회장이 유리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17일 롯데홀딩스의 주총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은 재계순위 5위로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아울렛을 비롯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롯데관광개발 등 규모가 엄청나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번 83조원(2013년 기준) 대부분의 수익은 신씨 일가와 일본인들이 배당받는 구조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받는 무력감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적은 지분을 갖고 편법으로 지배하는것도 부족해 거대 기업을 개인 소유인양 여기는 재벌의 횡포를 눈감아 줄 것인가? 또한 기업의 세금탈루 등 온갖 비리는 물론 재벌자제들의 도를 뛰어넘는 갑질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社說

대한민국은 너무 비좁다

정부가 지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던 3일 연휴를 즐겼다. 국민들을 쉬게 하는 데 인색하던 정부와 기업이 이번에는 모처럼 하루 더 쉬게 해주었으니 뜻밖이다. 무조건 바쁘게 일에 매달린다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 때마다 전국의 명승지나 유원지는 언제나 북적댄다. 조금 유명한 곳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드니 오히려 더 피곤하다. 그런 곳을 오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해마다 휴가 때면 서울에서 강릉을 오가는데 몇시간이 걸린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풀이된다. 그 근본요인은 연휴와 휴가철이 되면 작은 국토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위로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으니, 국민들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맴돌아야 한다. 남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이같은 피로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

경제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은 최근 연평균 3%대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활성화나 '창조경제' 등 여러가지 대책을 써보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남북한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어쩌면 한국의 성장판이 막혀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남북한 경제협력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모델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한국은 여가를 즐기는 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나 너무 비좁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보다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경제협력 활성화가 이런 비좁음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방안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신동빈發 골육상쟁

기자 수첩

박 상 길
<생활유통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안한 것만 못하다는 중용(中庸)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말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60)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대하는 태도와 그룹의 컨트롤타워이자 홍보를 맡은 정책본부(대외협력단장 소진세)의 언론 대응을 보면서 떠올랐던 사자성어다.

이번 롯데 사태에서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나치게 아버지를 비방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그룹 총수로는 보기 드물게 대국민 앞에 세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죄했지만 반롯데 정서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롯데 정서를 부추긴데에는 그룹 정책본부의 지나친 충성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을 차기 총수로 앉히기 위해 맨주먹으로 재계 5위 기업을 일군 '신격호 신화'를 빛이 바래게 했다. 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연신 흘리며 건강이상설을 지속적으로 제기,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을 노추(老醜)로 얼룩진 초라한 노인으로 몰아갔다.

신 회장은 아들에게 쫓겨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될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롯데가(家)에서 경영권을 두고 다시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다면 그 주인공은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29) 씨다.

신유열씨는 아버지를 롤모델로 3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을 따라 '아오야마가쿠인'을 졸업한 후 콜롬비아대학원에서 MBA를 밟는 과정에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입사했다. 신 회장처럼 경영 욕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과의 나이차는 31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나이 차인 34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처럼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경영권을 쥐고 있을 경우 현재의 상황이 반복되는 '데자뷰'(처음 해 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장소 따위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를 겪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신 회장이 아들로부터 훗날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또한 지나친 과욕이 망신살을 불렀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한다.

인사

■ 메트로신문사 ▲ 경제산업 에디터 차기태 ▲ 경제부장 구자익 ▲생활문화부장 염지은
■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 임용 ▲우정사업본부장 김기덕
■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정책과장 이정심
■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이창열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기혁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정승훈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정소운 ▲운영지원과장 오대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백상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김창수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과장 김훈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박혜경

명의대여 후 청구소송 당했다면

생활 법률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홍원 기자 hong@